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

제목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발행일 2014년 8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02-6262-2106
홈페이지 www.pcnc.go.kr
대표집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고동현 박사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ISSN 2383-5273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의견임.

목 차

I. 개요	1
1. 분석 목적	1
2. 행복과 삶의 질 지표	2
II. 행복지표의 국제비교	9
1. UN의 세계행복보고서	9
2. 신경경제재단(NEF)의 지구총행복지수	16
3. 벤호벤의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	20
4. 무엇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III. 삶의 질 지표의 국제비교	25
1.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	25
2. EIU의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	28
3.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29
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41
IV. 요약 및 시사점	45
1. 주요 결과 요약	45
2. 정책적 시사점	48

I. 개요

1. 분석 목적

-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경제적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임
- 게다가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경로를 짧은 시간에 겪으면서 이념갈등, 노사갈등, 상대적 빈곤 등 다양한 사회갈등과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높은 자살률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나 민주적 절차의 확립만으로는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 사회가 이러한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중심적 성장 논리를 넘어서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사회발전의 척도로 사용해 왔던 GDP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
- 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성장 위주의 사회발전에서 삶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질적인 사회발전으로의 전환계기를 모색하고자 함

2. 행복과 삶의 질 지표

1) 등장 배경

- 기존 GDP 중심의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고용, 건강,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로서 행복 지표가 대두
- GDP는 경제영역에서 생산활동이나 부의 축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여가, 소득분배, 환경 등 성장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음
 - 특히 양적인 성장은 보여 주지만, 그 성장이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지는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지적 능력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정책적 관심이 증가
-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와 불안감 속에서 전개
-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과 행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사회발전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
-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건강, 일, 교육, 사회적 관계, 지속가능성과 같은 국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측정

2) 지표의 정의

(1) 행복과 삶의 질 지표의 정의

-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통상 삶의 질, 복지, 웰빙, 삶의 만족 등의 개념과 혼용
-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고, 객관적 요소가 강조되는 ‘웰빙’(wellbeing)이나 ‘삶의 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2) 행복의 정의

● 객관적 차원의 행복

-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삶의 질’ 같은 것으로, 주관적 심리상태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 조건을 소유한 삶으로 정의
- 객관적 지표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정
- 이에 소득, 구매능력, 환경, 수명,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

● 주관적 차원의 행복

-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나 정서적 반응으로 규정됨.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정의
- 이는 행복을 외부의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행위 당사자의 내부 기준에 맞춰 정의하는 것
- 주로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측정
- 주관적 지표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질 개념을 기초로 하며, 기분이나 감정의 주관적 평가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 판단까지 다차원적으로 포함(통계개발원, 2013)

3) 행복 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구분

- 앞에서 언급한대로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통상 ‘행복’은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
-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경우 삶의 질, 복지,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행복,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행복은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함
 - 삶의 질은 사회의 객관적 상태와 개인의 만족감이라는 주관적 입장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한 ‘행복’보다는 ‘삶의 질’이 정책적 접근에 용이한 개념으로 평가되기도 함
- ☞ 여기서는 ‘행복’을 삶의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정서 경험, 삶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간주하여 접근하며,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인지 및 평가를 의미하는 바,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주관적 인지 및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4) 지표 동향

- 행복 개념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는 1972년 부탄의 왕추크 국왕에 의해 제안된 국민총행복(GNH)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음
 - 시간 활용, 생활수준, 거버넌스, 심리적 웰빙, 공동체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 등을 행복의 요소로 제시

-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는 ‘삶의 질’ 지표 작성에 관한 12개 권고사항을 제안
 - 전통적 경제지표인 GDP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적 성취, 삶의 질,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 지표 연구
- 스티글리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 OECD는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유럽연합위원회는 ‘GDP and Beyond :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행복과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국제비교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
- 최근 행복 지표의 대표적 사례로는 World Happiness Report(UN), Happy Planet Index(NEF), World Database of Happiness(Veenhoven) 등이 있으며, 삶의 질 지표로는 Human Development Index(UNDP), Where-to-be-born Index(EIU), Better Life Index(OECD) 등이 있음

【 국제기구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

국제기구	연구명	추진주체/조사기관	시작연도	주요항목
UN	World Happiness re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미국 콜롬비아대 지구연구소	2005	삶의 만족도 평가, 현 시점의 개인별 행복도 평가
UNDP	Human Development Index(HDI)	UNDP	1990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종합지수
OECD	Better Life Index	OECD	2011	주거, 소득, 고용, 교육성취, 환경, 기대수명, 범죄피해, 지원 관계망,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등 11개 분야 25개 지표
EU	Quality of Life Indicator	Sponsorship Group on Measuring Progress,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European Statistical System	2011	물질적 생활조건, 생산활동, 건강, 교육, 여가, 경제적/신체적 안전, 거버넌스, 환경, 삶의 만족도 등

【 국제연구기관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

추진주체 / 조사기관	연구명	시작연도	주요 항목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RutVeenhoven)	World Database of Happiness	2000	삶의 만족도
영국신경제재단(NEF)	Happy Planet Index(HPI)	2006	웰빙 경험, 기대수명, 생태발자국지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Quality of Life	2005	1인당 GDP, 기대수명, 정치안정성과 안전, 가족생활, 공동체생활, 기후, 실업률, 정치적 자유도, 성불평등

【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유럽권 】

국가	연구명	추진주체	시작연도	주요 항목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LSI)-Wellbeing in Netherland	네덜란드 사회연구원(SCP)	1973	주거, 건강, 소비, 여가, 이동성, 사회참여, 스포츠, 휴가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연방통계청(SFSO), 연방환경국(FOEN), 연방주거개발국(ARE)	2000	생활조건, 건강, 사회결속, 국제조정, 교육과 문화, 연구, 일, 경제시스템, 생산과 소비, 이동성, 에너지와 기후, 자연자원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MIP)	통계청	2003	경제, 혁신, 고용, 사회결속, 교육, 건강, 인구, 주거, 범죄, 환경
벨기에	WellBeBe	연방과학정책국(Belspo)	2006	개인역량(인지적/경제/사회적), 추구 가치, 생활기회, 사회적 기회 등
핀란드	Findicator	통계청, 총리실	2007	커뮤니티, 문화,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건강, 소득과 채무, 노동시장, 참여, 인구, 안전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NAWB)	신경제재단(NEF)	2009	개인적 웰빙(감정적 웰빙, 삶의 만족도), 사회적 웰빙(관계, 신뢰), 일에서의 웰빙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통계청	2010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개인 금융, 경제, 교육, 거버넌스, 실업률, 여가, 문화, 범죄, 환경 등
독일	Wachstum, Wohlstnad, Lebensqualität	성장/웰빙/삶의 질 조사위원회	2010	경제/사회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통계청	2012	물질적 부, 삶의 질, 환경지속가능성
이탈리아	Measur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BES)	통계청, 경제노동유한위원회	2010	건강, 교육과 훈련, 일과 생활 균형, 경제적 웰빙, 사회관계, 정치와 제도, 안전, 주관적 웰빙, 문화유산, 환경, 연구와 혁신, 서비스 질

【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북미/오세아니아/아시아 】

국가	연구명	추진주체	시작연도	주요 항목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위터루대CIW 네트워크	1999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문화, 시간이용, 교육, 환경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s System(KNIS)	의회 KNIS위원회/ 미국과학아카데미, The State of America	2003	소비, 고용, 금융, 정부, 건강과 주거, 교육, 범죄와 정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환경 등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참여 시의회의 삶의 질 연구팀	1999	인구성장, 소득, 일과 생활 균형, 경제성장, 고용, 교육, 직업훈련, 주거, 건강, 물적 환경, 자연환경, 안전, 사회적 연결, 시민권리 등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Australian Unity, Deakin대학의 호주 삶의 질 센터	2000	개인웰빙지수(건강, 안전, 성취, 환경, 관계, 종교), 국가웰빙지수(사회경제조건, 환경, 비즈니스, 정부, 국가안전)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Buhtan Research Center	1999	생활수준, 건강, 교육, 생태계다양성과 회복력,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력, 시간사용균형, 거버넌스, 활력있는 지역사회, 심리적 행복
중국(홍콩)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ChineseUnv. 삶의 질 센터	2003	스트레스지수, 삶의 만족도, 언론자유도, 환경, 정부수행, 경제생활지수 등 21개 지표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내각부웰빙측정위원회	2010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	People's Life Indicator(PLI)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1992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교육, 여가, 교제관계

【 국내 공공기관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

추진주체	연구명	시작연도	주요 항목
통계청 통계개발원	삶의 질 지표	2014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교육, 건강,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79	인구, 사망률, 건강, 교육, 경제활동, 소득분배, 소비, 주거, 에너지, 교통사고, 범죄, 문화, 이동전화가입자, 기부참여, 사회복지시설 등
삶의질향상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지역발전지수	2012	생활환경(노후주택, 도로포장률 등), 지역경제(일자 리, 재정자립도), 지역사회(고령화율, 인구증가율), 교육(학고수, 대학진학률), 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경제사회발전지표	2009	소득, 경제개발성, 정보화, 기술혁신, 인적자본, 자유, 안전, 복지/분배, 사회자본, 출산율, 고령화, 관용성, 정부역량, 환경 등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파 행복지수	2008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2007	건강, GDP, 교육, 직업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기회지수 등

(계속)

추진주체	연구명	시작연도	주요 항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행복지수	2013	문화여가 여건, 자원, 참여, 경력, 태도 및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음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2013	자이존중감, 삶의 목적추구, 경제적 웰빙, 건강, 보호, 관계, 교육, 놀이여가, 참여, 청소년예산 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민행복지수	2006	주관적 행복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민행복지수	2009	주관적 행복감, 객관적 행복지수 평가, 생활환경, 사회환경 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아동청소년행 복지표	2010	권리증진, 참여기회, 기회균등, 안전과 보호, 건강증진, 직업역량개발, 문화역량개발, 글로벌역량 개발, 인적자원, 물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행복과 삶의 질 지표 】

추진주체	연구명	시작연도	주요 항목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09	물질적행복, 보건과안전, 교육, 가족과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국가미래연구원	국민행복지수	2013	1인당소비지출, 노동생산성, 정부지출, 가계부채,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중산층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신뢰수준, 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행복지수(TE)	2001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등
LG경제연구원	생활경제고통지수	2005	생활물가상승률, 체감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행복지수	2011	최중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

【 국가/기구별 지수화 여부 및 분석방법 】

추진주체	국가/기구	과제 명	지수화여부		분석방법			
			종합 지수화	지표 목록법	시계 열	국가 비교	인구 속성	지역 비교
국제기구	OECD	How's Life	○	○	○	○		
	한국	삶의 질 지표		○	○			
통계청	영국	MNWB		○	○		○	○
	호주	MAP		○	○		○	
	아일랜드	MIP		○	○	○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	○	○	○	
기타 정부기관	부탄	GNH	○				○	○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	○		○	○
통계청& 정부기관	핀란드	Finderator		○	○			
	이탈리아	BES		○	○		○	○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	○			
국책기관	네덜란드	LSI	○		○		○	
민간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	○	○		○	○	○
	호주	Australian Unity WE Index	○	○	○		○	○
	캐나다	CIW	○	○	○			
	중국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	○	○			

자료 : 통계개발원(2013),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2013.12.

II. 행복지표의 국제비교

1.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1) 개요

- UN은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 2011년 7월 UN 총회에서 국민 행복을 측정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공공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얻으려는 회원국들이 모임
 - 2012년 4월 부탄 수상이 주관하는 ‘행복과 웰빙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1차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GDP 대안으로 행복지표의 적극 검토 제안
 - OECD Guidelines(2013)는 웰빙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시
 - UN은 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행복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시
 - 보고서는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에서 발간
- 미국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가 UN의 위탁을 받아 Gallup World Poll(GWP)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World Value Survey(WVS), European Social Survey(ESS) 등 각종 설문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작성함
- 이와 더불어 행복에 미치는 외부 요인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조사 자료는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각 국별 1,000명의 15세~60세 인구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 조사방식은 각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후 국가별 평균치 산정
 - 1차 World Happiness Report(2012)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Gallup World Poll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
 - 2차 World Happiness Report(2013)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Gallup World Poll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 각 국별 표본 3,0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평균값을 제시
 - 주로 Cantril ladder of life 조사(Gallup World Poll)에 기반 : 삶을 일종의 사다리로 상상하여 가능한 가장 좋은 삶을 10점, 가능한 가장 나쁜 삶을 0점으로 하여 현재의 삶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여 국가별 평균치 산정
 - 그 외에 '주관적 웰빙'에 대한 또 다른 측정방법으로 감정적 상태에 대해 조사함. 즉 조사 전날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측정(질문은 긍정적 감정 느낌과 부정적 감정 느낌으로 구성, 0점~3점 평가)
 - 또한 삶의 만족도 조사(World Value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및 삶 전체에 대한 행복도 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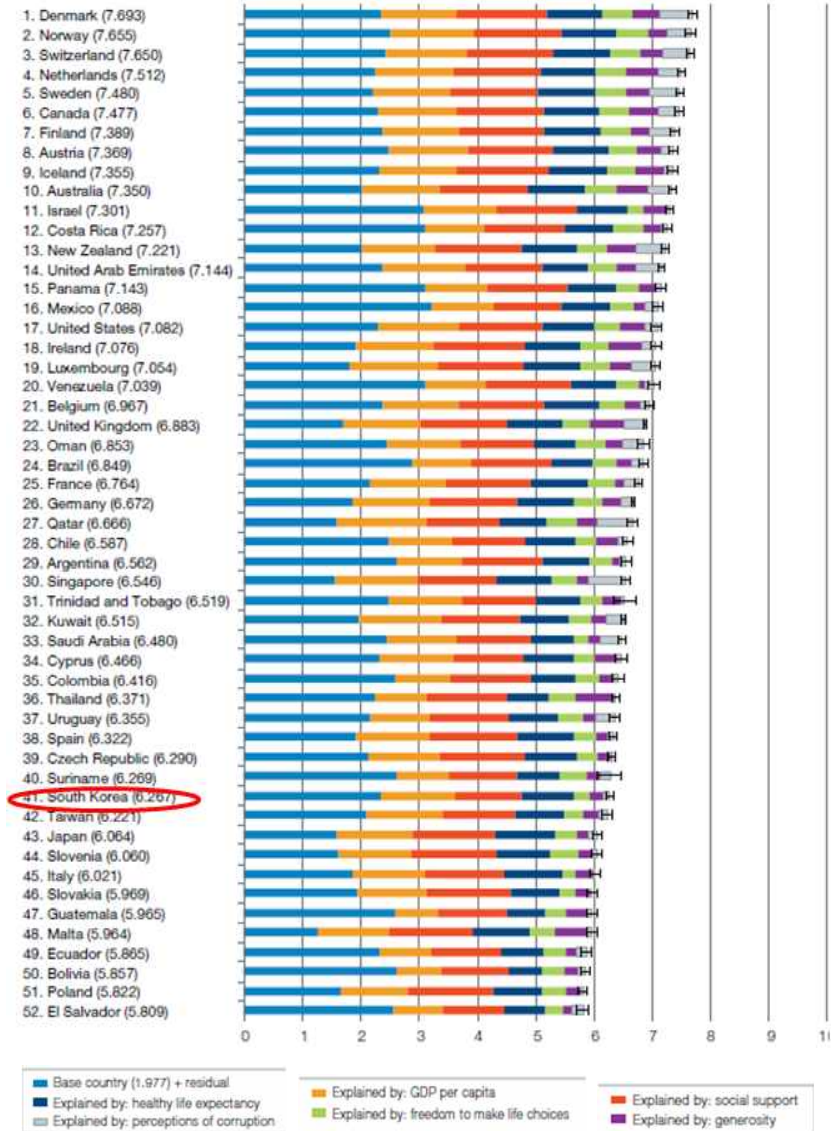
2) 주요 결과

(1) 행복도 순위

- 2013년 9월에 발표된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10-2012년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총 6,267점으로 전 세계 156개국 중 41위를 차지(세계 평균 : 5,158점)
- 가장 행복한 국가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7,693점), 그 다음 순위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

- 반면 가장 불행한 나라는 르완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냉, 토고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
-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한국인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대만(42위)과 일본(43위)이 그 뒤를 차지, 중국은 93위로 매우 낮은 수준
 - 특징적인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소득 대비 자기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띠는 점으로, 소득에 비해 설문결과 점수가 낮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 전 세계 GDP 1위인 미국은 17위로 상위권에 올랐지만, 문화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6위, 호주 10위, 코스타리카 12위, 아랍에미리트 14위, 파나마 15위, 멕시코 16위
 - 반면 영국 22위, 프랑스 25위, 독일 26위로 서유럽 국가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성장과 행복수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스터린의 역설’이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임
 - 이스터린은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함께 증가하지만, 15,000달러를 넘으면 ‘수확체감’ 현상을 보이면서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
 - 실제 분석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소득수준이지만 소비관, 물질주의, 공동체意識, 전통관 등에 따라 행복 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국과 빈국에서 모두 소득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진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행복도 순위(2010-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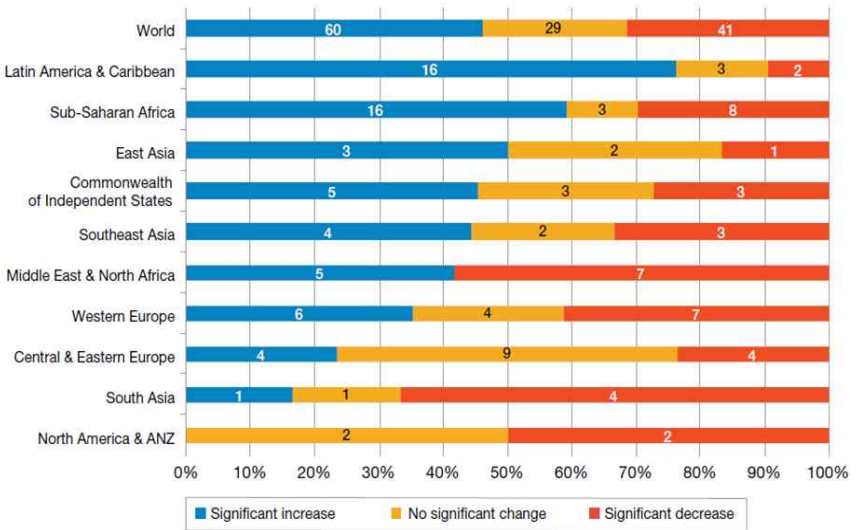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2) 행복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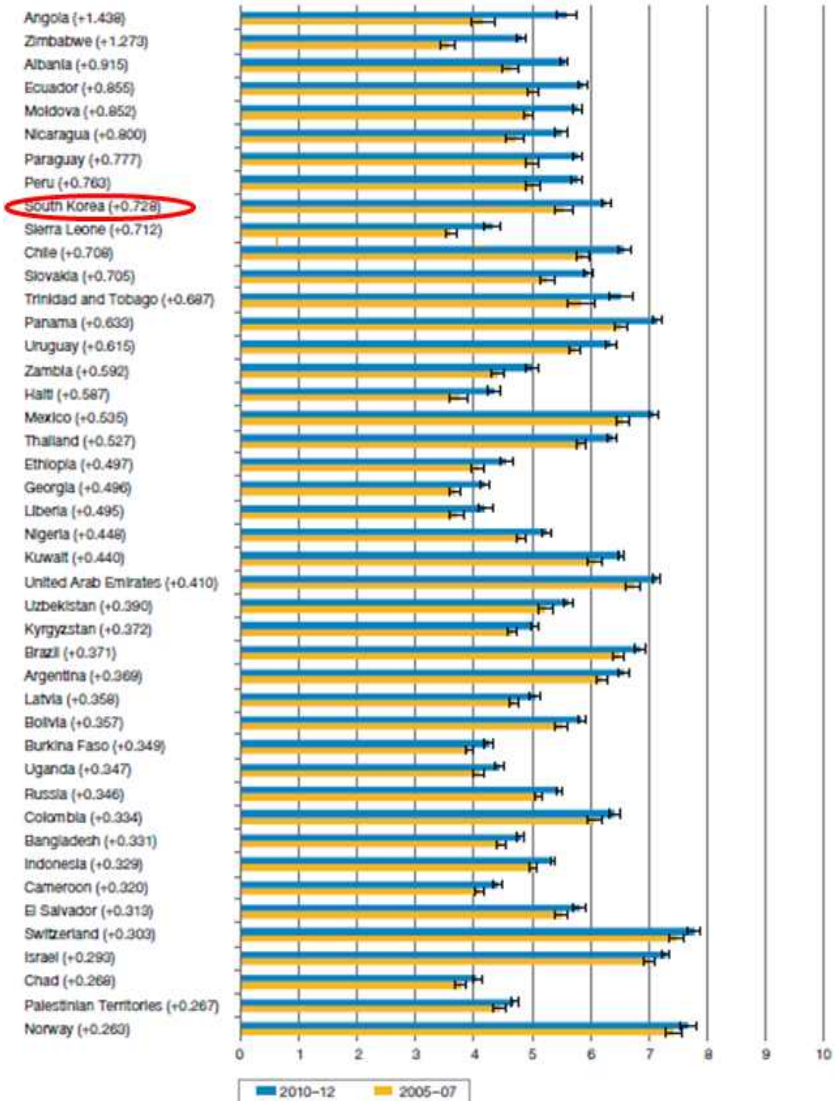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최근 행복지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8년 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12년 국민 행복도 평균은 2005~07년보다 0.728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 순위로는 9위를 차지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유로존 위기로 인해 행복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집트,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자유 문제 등의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
- 반면 앙골라, 짐바브웨, 알바니아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부패가 줄면서 행복이 증가했다고”고 지적

【 행복의 상승과 하락국가(대륙별): 2005-07년과 2010-12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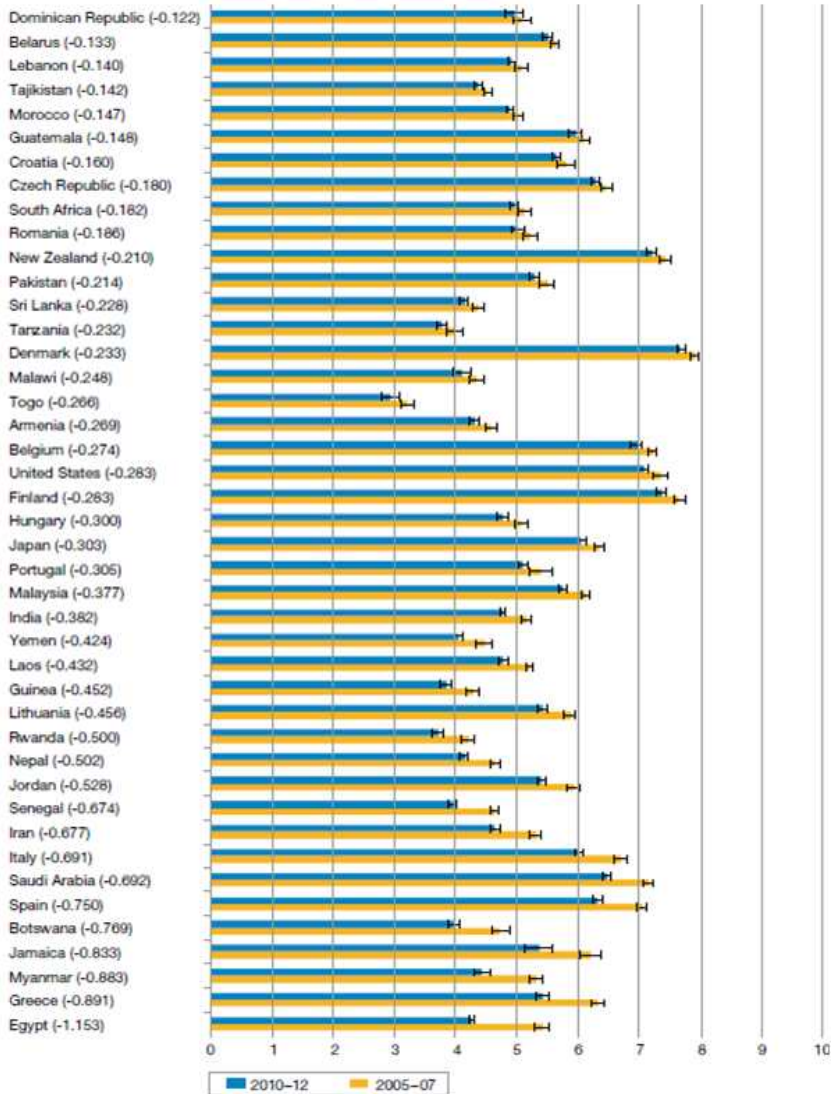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 행복도 추이(증가): 2005-07년과 2010-12년 비교 】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 행복도 추이(감소): 2005-07년과 2010-12년 비교 】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2. 신경제재단(NEF)의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1) 개요

-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개발한 척도로서, 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고려한 삶의 질 제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됨
-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웰빙 경험(생활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등 3개의 변수로 구성

$$\text{Happy Planet Index} \approx \frac{\text{Experienced well-being} \times \text{Life expectancy}}{\text{Ecological footprint}}$$

- 생태발자국 지수는 현재 인구가 현재 상태의 소비, 기술발전, 자원효율성을 유지할 때 필요로 하는 전 지구적인 평균 토지면적을 말함. 개인, 도시, 국가 등이 생태계가 재생해낼 수 있는 속도에 견주어 얼마나 빠르게 가용한 환경 자산을 소진시키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

2) 주요 결과

- 2012년 조사 결과 한국의 지구촌행복지수(HPI) 순위는 151개국 중 63위를 차지
- 행복지수 1위는 코스타리카이며, 이어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즈,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파나마,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순으로,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해당
- 특징적인 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지표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HPI지수를 기준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노르웨이 29위, 스위스 34위, 스웨덴 52위, 네덜란드 67위, 핀란드 70위)

- 그 밖에 영국 41위, 독일 46위, 프랑스 50위, 캐나다 65위, 호주 76위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105위로 하위권에 위치한 점이 두드러짐
-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 45위, 중국 60위, 홍콩 102위
- 한국의 경우 Happy Planet Index의 구성요소 중 웰빙 경험은 6.1점으로 44위, 기대수명은 80.6세로 17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생태환경(ecological footprint)은 4.6점 119위로 전체 순위가 하락하게 된 주요 요인

Well-being	Arithmetic mean of individual responses to the Ladder of Life question in the Gallup World Poll. Latest data for each country as at February 2012
Life Expectancy	2011 data taken from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Footprint	2008 data taken from Global Footprint Network for 142 countries. nef estimates for 9 countries

- 한편,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2012년 9,500달러(67위)에 불과하며, 베트남, 콜롬비아 등 행복지수 상위권 국가들의 GDP도 매우 낮은 편임
- 반면, 1인당 GDP 상위권 국가들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06,958달러(1위), 노르웨이 99,664달러(3위), 스위스 78,754달러(4위), 호주 68,915달러(6위), 스웨덴 57,948달러(7위), 덴마크 53,418달러(8위), 캐나다 51,688달러(10위), 미국 49,601달러(12위)이지만,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에도 2012년 1인당 GDP는 23,679달러(34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하지만, Happy Planet Index 순위는 63위로 중하위권
- 한국의 Happy Planet Index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02위(41.1점)였던 것이 2009년 68위(44.4점)로 크게 상승했고, 2012년 63위(43.8점)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Happy Planet Index 2012 】

순위	국가	Life Satisfaction	Life Expectancy	Happy Planet Index	Ecological Footprint
1	Costa Rica	7.3	79.3	64	2.52
2	Viet Nam	5.8	75.2	60.4	1.39
3	Colombia	6.4	73.7	59.8	1.8
4	Belize	6.5	76.1	59.3	2.11
5	El Salvador	6.7	72.2	58.9	1.99
6	Jamaica	6.2	73.1	58.5	1.72
7	Panama	7.3	76.1	57.8	2.97
8	Nicaragua	5.7	74	57.1	1.56
9	Venezuela	7.5	74.4	56.9	3.02
10	Guatemala	6.3	71.2	56.9	1.78
11	Bangladesh	5	68.9	56.3	0.66
12	Cuba	5.4	79.1	56.2	1.9
13	Honduras	5.9	73.1	56	1.73
14	Indonesia	5.5	69.4	55.5	1.13
15	Israel	7.4	81.6	55.2	3.96
16	Pakistan	5.3	65.4	54.1	0.75
17	Argentina	6.4	75.9	54.1	2.71
18	Albania	5.3	76.9	54.1	1.81
19	Chile	6.6	79.1	53.9	3.24
20	Thailand	6.2	74.1	53.5	2.41
21	Brazil	6.8	73.5	52.9	2.93
22	Mexico	6.8	77	52.9	3.3
23	Ecuador	5.8	75.6	52.5	2.37
24	Peru	5.6	74	52.4	2.03
25	Philippines	4.9	68.7	52.4	0.98
26	Algeria	5.2	73.1	52.2	1.65
27	Jordan	5.7	73.4	51.7	2.13
28	New Zealand	7.2	80.7	51.6	4.31
29	Norway	7.6	81.1	51.4	4.77
30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4.8	72.8	51.2	1.4
31	Guyana	6	69.9	51.2	2.08
32	India	5	65.4	50.9	0.87
33	Dominican Republic	4.7	73.4	50.7	1.42
34	Switzerland	7.5	82.3	50.3	5.01
35	Sri Lanka	4.2	74.9	49.4	1.21

(계속)

순위	국가	Life Satisfaction	Life Expectancy	Happy Planet Index	Ecological Footprint
36	Iraq	5	69	49.2	1.42
37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5	67.5	49.1	1.3
38	Kyrgyzstan	5	67.7	49.1	1.29
39	Tunisia	4.7	74.5	48.3	1.76
40	Moldova, Republic of	5.6	69.3	48	2.1
41	United Kingdom	7	80.2	47.9	4.71
42	Morocco	4.4	72.2	47.9	1.32
43	Tajikistan	4.4	67.5	47.8	0.9
44	Turkey	5.5	74	47.6	2.55
45	Japan	6.1	83.4	47.5	4.17
46	Germany	6.7	80.4	47.2	4.57
47	Syrian Arab Republic	4.1	75.9	47.1	1.45
48	Austria	7.3	80.9	47.1	5.29
49	Madagascar	4.6	66.7	46.8	1.16
50	France	6.8	81.5	46.5	4.91
51	Italy	6.4	81.9	46.4	4.52
52	Sweden	7.5	81.4	46.2	5.71
53	Armenia	4.4	74.2	46	1.73
54	Uzbekistan	5.1	68.3	46	1.82
55	Georgia	4.1	73.7	46	1.43
56	Saudi Arabia	6.7	73.9	46	3.99
57	Paraguay	5.8	72.5	45.8	2.99
58	Nepal	3.8	68.8	45.6	0.76
59	Cyprus	6.4	79.6	45.5	4.44
60	China	4.7	73.5	44.7	2.13
62	Spain	6.2	81.4	44.1	4.74
63	Korea	6.1	80.6	43.8	4.62
64	Bolivia	5.8	66.6	43.6	2.61
65	Canada	7.7	81	43.6	6.43
66	Malta	5.8	79.6	43.1	4.26
67	Netherlands	7.5	80.7	43.1	6.34
68	Yemen	3.9	65.5	43	0.87
69	Lebanon	5.2	72.6	42.9	2.85
70	Finland	7.4	80	42.7	6.21
71	Poland	5.8	76.1	42.6	3.94

자료 : New Economics Foundation, Happy Planet Index 2012

3. 벤호벤(Veenhoven)의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

1) 개요

-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의 루트 벤호벤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는 매년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
- 여기에서 행복은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규정됨. 세부적으로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행복을 측정

【 Veenhoven의 삶의 질 정의 】

	Outer qualities	Inner qualities
Life chance	Livability of environment	Life-ability of person
Life results	Utility of life	Appreciation of life

자료 : Veenhoven, 2000

2) 주요 결과

- World Database of Happiness의 2000-2009년 평균 행복지수를 살펴 보면, 세계 149개국 중 한국은 6.0점으로 70위를 차지
 -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8.5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 파나마, 스웨덴 순
- 한국의 행복도 점수는 1981년에 4.3점, 2001년 4.4점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 6.4점으로 상승
- 이후 2006년 5.7점, 2007년 6.2점, 2008년 5.4점, 2010년 6.9점, 2012년 5.9점으로 등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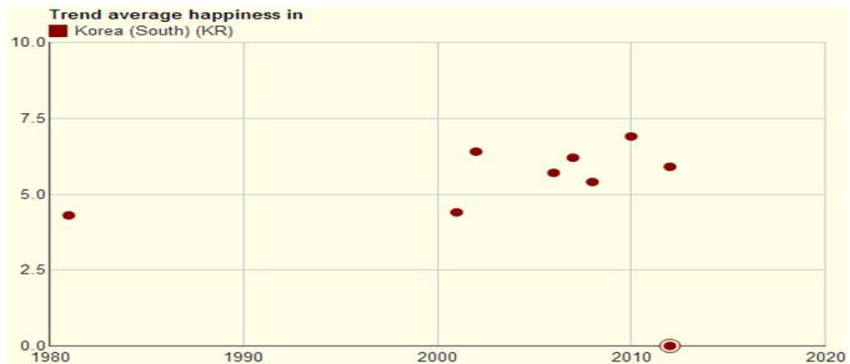
【 World Database of Happiness 행복지수, 2000-2009 】

순위	국가명	행복도	순위	국가명	행복도	순위	국가명	행복도
1	Costa Rica	8.5	26	United Kingdom	7.2	51	Czech Republic	6.5
2	Denmark	8.3	27	Guatemala	7.2	52	Guyana	6.5
3	Iceland	8.2	28	Turkmenistan	7.2	53	Japan	6.5
4	Switzerland	8.0	29	Cyprus	7.1	54	Malaysia	6.5
5	Finland	7.9	30	Germany	7.1	55	Saudi Arabia	6.5
6	Mexico	7.9	31	Malta	7.1	56	Ecuador	6.4
7	Norway	7.9	32	Nicaragua	7.1	57	Greece	6.4
8	Canada	7.8	33	Honduras	7.0	58	Poland	6.4
9	Panama	7.8	34	Israel	7.0	59	Bolivia	6.3
10	Sweden	7.8	35	Trinidad and Tobago	7.0	60	China	6.3
11	Australia	7.7	36	Singapore	6.9	61	Indonesia	6.3
12	Colombia	7.7	37	Slovenia	6.9	62	Laos	6.2
13	Luxembourg	7.7	38	Andorra	6.8	63	Malawi	6.2
14	Ireland	7.6	39	Paraguay	6.8	64	Peru	6.2
15	Netherlands	7.6	40	Qatar	6.8	65	Taiwan	6.2
16	Brazil	7.5	41	Chile	6.7	66	Kazakhstan	6.1
17	Dominican Republic	7.5	42	Italy	6.7	67	Viet Nam	6.1
18	New Zealand	7.5	43	Jamaica	6.7	68	Estonia	6.0
19	Venezuela	7.5	44	El Salvador	6.7	69	Croatia	6.0
20	Austria	7.4	45	Uruguay	6.7	70	Korea (South)	6.0
21	United States	7.4	46	Belize	6.6	71	Uzbekistan	6.0
22	United Arab Emirate	7.3	47	France	6.6	72	Iran	5.9
23	Argentina	7.3	48	Hong Kong	6.6	73	Jordan	5.9
24	Belgium	7.3	49	Kuwait	6.6	74	Philippines	5.9
25	Spain	7.2	50	Thailand	6.6	75	Slovakia	5.9

주 : How much people enjoy their life-as-a-whole on scale 0 to 10

자료 : World Database of Happiness(<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 한국의 행복도 추이, 2001~2012 】



자료 : World Database of Happiness(<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4. 무엇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 World Happiness Report는 행복과 불행의 정도는 소득, 직업, 사회적 자본, 가치관 및 종교 등 외부적 요인과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교육 등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지적(World Happiness Report, 2012: 경기개발연구원, 2012)

1) 소득 요인

- 삶의 만족도 변화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소득에 따른 행복의 한계효용이 존재하는데, 미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수준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경제성장이 직접적으로 행복을 담보하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다른 요소들(고용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변화가 행복에 영향
-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 상황과 개인적인 차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및 가치관에 의해 영향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낮은 소득, 식량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안전한 의식주 부족,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소득의 증가가 중요

2) 직업 요인

- 실업은 사회적 지위, 자존심, 직장, 사회생활 및 기타 손실을 통해 행복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자리의 질(높은 수입, 유연한 근무시간, 승진, 직업에 대한 흥미 등)도 중요한 요소

3) 사회적 자본 요인

- 공동체 간 유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 일부 국가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
- 새로운 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공유할지라도 원주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음
- 자유는 행복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평등지표는 중립적

4) 가치관 및 종교 요인

-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가치관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등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사회생활을 감소케 하여 행복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5) 정신적 건강 요인

- 정신 건강은 현 상황에 미치는 영향(낮은 소득, 실업, 범죄기록, 10대 임신, 낮은 교육수준 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줌
- 정신적 질병은 불행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임. 보고서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원한다면 정신 건강에 대한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

6) 가족 요인

- 결혼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짐. 결혼의 경우 장기적인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뢰, 우정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볼 수 있음
- 이혼은 미혼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신적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7) 교육 요인

- 교육수준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행복과 관련됨

8) 성별 요인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만족도와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9) 연령 요인

- 나이는 행복과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
- 나이와 행복의 관계는 U자형 패턴을 가짐(40~50세에서 상승)
- 다만 70~80세 노인층에서는 건강의 영향으로 행복도가 하락

【 행복 결정변수(상관계수) 】

	HDI	Job Satisfaction	Perceptions of Safety	Economic Conditions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Effectiveness	Freedom of choice	Inequality
Coefficient	4.813***	6.305***	1.685***	1.08*	-0.595	0.818***	4.454***	-6.027***
Constant	2.167***	0.705*	4.342***	5.00***	5.734***	5.429***	2.208***	6.694***
Adj- RSq	0.584	0.599	0.049	0.02	0.002	0.535	0.312	0.335
N.	152	152	148	151	133	152	151	124

*** Significant at 0.1%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 World Happiness Report의 분석에 따르면,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간개발지수(HDI), 직업 안정성, 선택의 자유, 불평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그 밖에 안전에 대한 인식, 정부 효율성, 경제적 조건 등도 행복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III. 삶의 질 지표의 국제비교

1.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1) 개요

-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하여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HDI에서 삶의 질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함. 즉 경제성장과 인간 발전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지 를 측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HDI는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3가지 차원으로 건강수명의 유지, 지식, 품위있는 생활수준 등을 제시
- 그 구성요소는 기대수명, 성인문자해독율, 교육기회, 1인당 국내총생산 등 4가지 지표로, 각각을 측정하여 지수화

【 HDI 지표지수 】

차원	지표	지수
건강 수명	기대수명	평균수명지수
지식	성인문자해독율 교육기회(취학률)	교육지수=2/3(성인문자해독율)+1/3(교육기회)
품위 있는 생활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지수

- HDI는 기존 GDP 위주의 사회발전 지표와 평가가 갖는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또한 국제기구에 의해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

- 그러나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과소하며, 상/중/하위 국가들 간에 HDI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윤강재·김계연, 2010)

2)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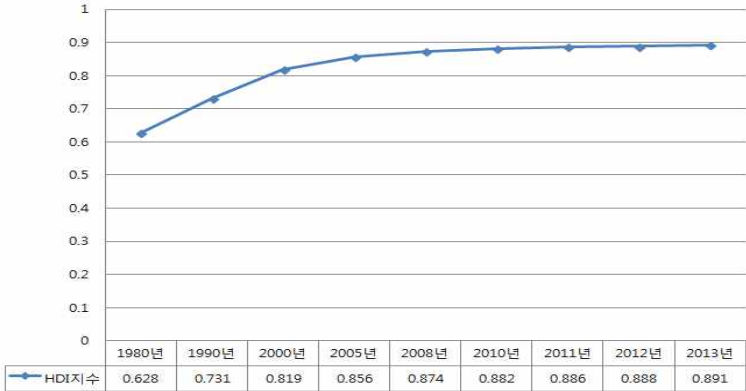
- 한국의 HDI 순위는 137개국 중 15위(0.891점)를 차지, 상위권에 속함
 - HDI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0.944점)이며, 그 다음으로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순
- HDI의 주요 구성요소인 1인당 GDP,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의 지표는 경제적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우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Human Development Index 2013, 상위권 국가 】

순위	국가	HDI Value (2013년)	기대수명 (2013년)	학습지속년수 (2012년)	기대학습지속년수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2011 PPP\$) (2013년)	HDI Value (2012년)	전년대비 순위변동 (2012-2013)
1	노르웨이	0.944	81.5	12.6	17.6	63,909	0.943	0
2	호주	0.933	82.5	12.8	19.9	41,524	0.931	0
3	스위스	0.917	82.6	12.2	15.7	53,762	0.916	0
4	네덜란드	0.915	81.0	11.9	17.9	42,397	0.915	0
5	미국	0.914	78.9	12.9	16.5	52,308	0.912	0
6	독일	0.911	80.7	12.9	16.3	43,049	0.911	0
7	뉴질랜드	0.910	81.1	12.5	19.4	32,569	0.908	0
8	캐나다	0.902	81.5	12.3	15.9	41,867	0.901	0
9	싱가포르	0.901	82.3	10.2	15.4	72,371	0.899	3
10	덴마크	0.900	79.4	112.1	16.9	42,880	0.900	0
11	아일랜드	0.899	80.7	11.6	18.6	33,414	0.901	-3
12	스웨덴	0.898	81.8	11.7	15.8	43,201	0.897	-1
13	아이슬란드	0.895	82.1	10.4	18.7	35,116	0.893	0
14	영국	0.892	80.5	12.3	16.2	35,002	0.890	0
15	홍콩	0.891	83.4	10.0	15.6	52,383	0.889	0
15	대한민국	0.891	81.5	11.8	17.0	30,345	0.888	1
17	일본	0.890	83.6	11.5	15.3	36,747	0.888	-1
18	리히텐슈타인	0.889	79.9	10.3	115.1	87,085	0.888	-2
19	이스라엘	0.888	81.8	12.5	15.7	29,966	0.886	0
20	프랑스	0.884	81.8	11.1	16.0	36,629	0.88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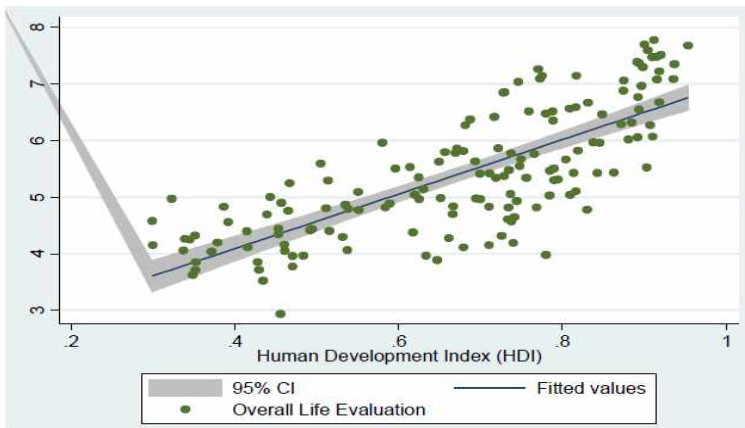
- 한국의 HDI의 추이를 보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순위가 5계단 상승

【 인간개발지수(HDI) 추이, 1980-2013 】



-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HDI와 행복(전체 삶의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0.77로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HDI와 행복의 관계 】



자료 : UN(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2.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

(Where-to-be-born Index)

1) 개요

- 영국 경제전문지인 The Economist가 실시한 삶의 질 연구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와 객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 결정요인을 접목
- 2005년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를 사용해 왔으며, 이후 ‘Where-to-be-born Index’로 명칭을 바꿔 측정하고 있음

【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 】

영역	지표	조사기관
물질적 웰빙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건강	기대수명	US Census Bureau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비율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가족 생활	이혼율	UN; Euromonitor
공동체 생활	교회, 노조가입률	ILO; World Value Survey
기후 및 지리적 조건	기후대	CIA World Factbook
직업 안정성	실업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LO
정치적 자유	정치적·시민적 자유 지수	Freedom House
젠더 평등	성별 평균소득 비율	UNDP Report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3), Where-to-be-born Index 2013

2) 주요 결과

- 한국의 2013년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Where-to-be-born Index)는 80개국 중 19위(7.25점)를 차지
- 2005년 Quality of Life Index는 111개국 중에서 30위(6.877)로,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순위가 11계단 상승한 상황

【 Where-to-be-born Index 2013 】

Rank	Country or territory	Score (out of 10)
1	Switzerland	8.22
2	Australia	8.12
3	Norway	8.09
4	Sweden	8.02
5	Denmark	8.01
6	Singapore	8.00
7	New Zealand	7.95
8	Netherlands	7.94
9	Canada	7.81
10	Hong Kong	7.80
11	Finland	7.76
12	Ireland	7.74
13	Austria	7.73
14	Taiwan	7.67
15	Belgium	7.51
16	Germany	7.38
17	United States	7.38
18	United Arab Emirates	7.33
19	South Korea	7.25
20	Israel	7.23
21	Italy	7.21
22	Kuwait	7.18
23	Chile	7.10
24	Cyprus	7.10
25	Japan	7.08
26	France	7.04
27	Great Britain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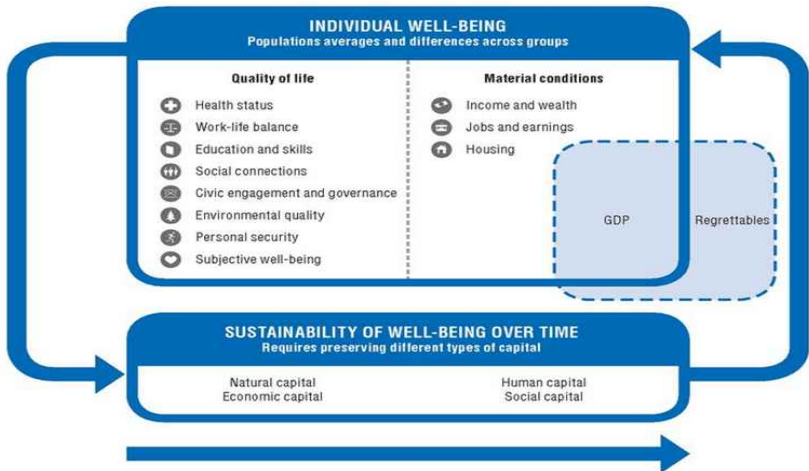
3.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1) 개요

- OECD는 2011년 5월 창설 5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를 발족
- 스티글리츠위원회(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보고서(2009)의 제안을 기초로 ‘웰빙’(삶의 질)에 대한 측정과 국제비교를 추진

- “Your Better Life Index’ 서비스(www.oecdbetterlifeindex.org)와 ‘How’s Life?’ 보고서를 제공
- 경제발전과 함께 OECD 회원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났으나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
- Better Life Index는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3가지 축으로 하는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전반적 웰빙 수준을 평가함
- Better Life Index는 34개 회원국과 러시아와 브라질 2개국을 더해 총 36개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를 산출
-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등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하여 국제비교 및 시계열 분석 자료를 제공
- 특징적인 것은 Better Life Index의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11개 웰빙 영역에 대해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웰빙 지표를 작성하고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

【 웰빙의 개념 틀 】



자료 :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 Better Life Index 구성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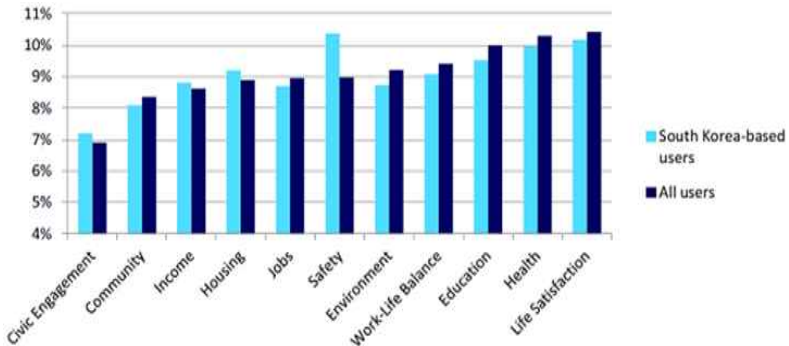
부문	영역	지표명	정의
물질적 조건	소득과 부	가구당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차감한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주식 등)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대료 소득 등
	일자리와 소득	직업안정성	6개월 미만의 단기고용 비율
		개인소득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근로가능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된 인구 비율
	주거	장기실업률	노동인구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 있고 구직활동 하는)에 있는 사람의 비율
		주거 지출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 있는 가구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room) 수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삶의 질	사회적 관계	지원 관계망의 질
교육과 기술		기대교육기간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기간
		학생의 인지적 기술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점수
		교육 성취	고졸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 비율
건강 상태		건강상태 자기보고	'당신의 건강상태의견'에 건강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기대수명	현재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수명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규칙 제정시 협의	규칙 도입할 때 합의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지표
		투표율	실제 선거인구의 투표등록 인구 비율
환경의 질		수질 만족도	거주 지역의 수질에 대한 만족 응답자 비율
		대기의 질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 농도
개인적 안전		살인율	인구 10만 명 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 살인피해자 수
		범죄 피해율	과거 12개월 내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여가 및 개인 돌봄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 제외)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10:매우만족~0:매우불만족) 평가의 개인별 점수 평균

2) 주요 결과

(1) 영역별 중요성 인식

- 더 나은 삶 지수(BLI)는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삶의 만족, 건강 및 교육에 우선 가치를 부여
 - 다만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및 남미 이용자들은 북미 이용자보다는 물질적 조건에 가중치를 더 부여
 -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및 공동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은 일과 삶의 균형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임. 교육은 연령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
- 한국인들은 안전, 삶의 만족, 건강 등의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
 - 특히 안전을 비롯해 주거, 소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영역별 중요성 인식(preferenc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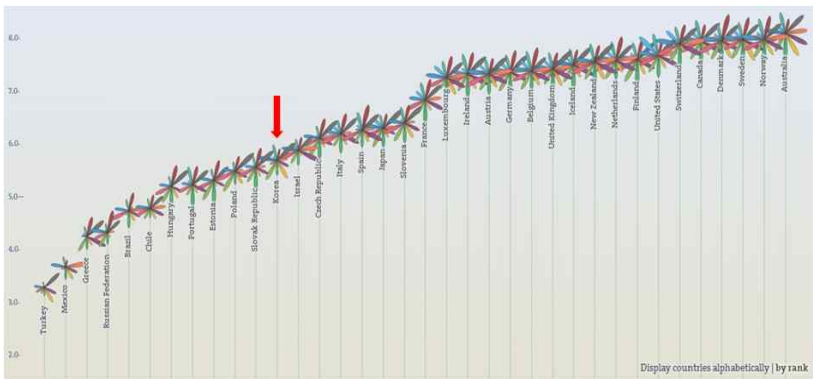


자료 : OECD(2013), Better Life Index Country Reports

(2) 국제비교에서의 한국 위치

- 2014년 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6개국 중 25위
- 평균점수에서 1위는 호주가 차지하였고,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스위스,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순
- 한국의 종합지수 순위는 2011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로 중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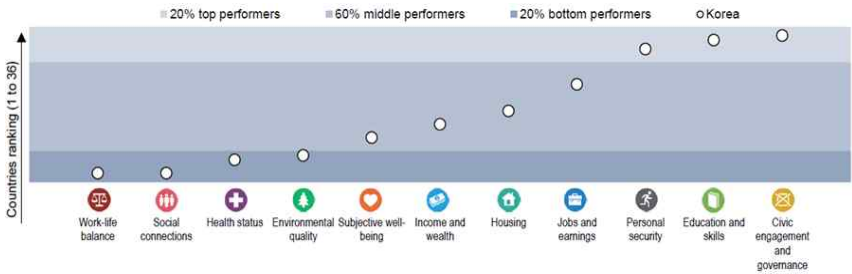
【 Better Life Index 국제비교(2014) 】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4

-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영역 : 시민참여(7.5점, 3위), 교육(8.0점, 4위), 안전(9.5점, 6위) 등 3개 영역이 36개국 중 상위 20%에 해당
-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영역 : 공동체(3.1점, 34위), 일과 삶의 균형(4.2점, 34위), 건강(5.0점, 30위), 환경(5.3점, 30위) 등 4개 영역은 하위 20%에 해당
- 삶의 만족도 지수는 4.2점, 25위로 낮은 수준
- 고용/임금(7.6점, 14위), 주거(5.9점, 20위), 소득(2.3점, 23위) 등은 중간 60% 수준에 해당

【 한국의 영역별 순위 : 상위 20%, 하위 20% 영역, 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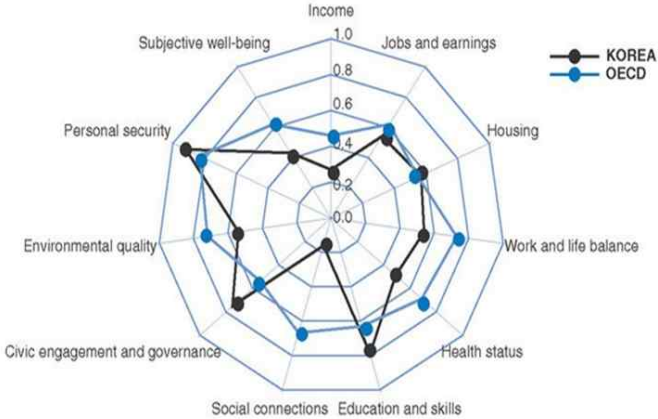


자료 : OECD(2014), Better Life Index Country Reports: How's Life in Korea, 2014.5

【 한국의 영역별 지수 및 순위, 2014 】



【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영역별 점수, 2013 】



자료 : OECD(2013), Better Life Index Country Reports, 2013.5

-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표
 - 장기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0.01%)으로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학생의 독해, 수학, 과학 부문 성적도는 평균 542점으로 1위, 주거비 비중도 16%, 2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안정성은 4위, 정책결정 참여도는 6위, 지난 1년간 폭행 등 범죄 피해 경험 비율은 7위로 나타남
-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표
 - 주관적 건강상태는 36.8%만이 양호한 것으로 응답하여 전체 35위로 최하위 수준
 - 지원 관계망의 질은 34위,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34위, 대기오염도는 33위로 매우 열악한 수준
 - 기본시설 설치주택 비율 28위, 수질에 만족하는 비율 27위로 낮은 수준
 - 삶의 만족도 역시 25위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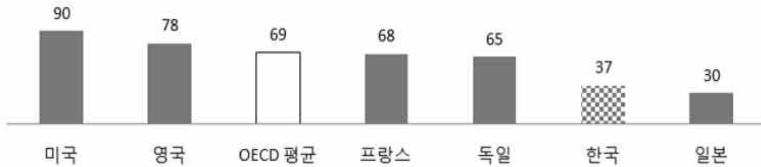
【 Better Life Index 지표별 한국의 점수 및 순위, 2014 】

영역	지수	순위	지표	지표값	순위	성별격차	계층별격차
주거	5.9	20위	개인당 방 수	1.4 rooms	24위		
			기본시설 있는 가구	95.84%	28위		
			주거 지출	16%	2위		
소득	2.3	23위	가계 순가처분소득	18,035달러 +2.1%(08년 비교)	26위		5.73, 22위/30개국
			가계 금융자산	28,290달러 +10.7%(08년 비교)	19위		
직업	7.6	14위	고용률	64%,	22위	1.40, 30위	1.69, 16위
			장기실업률	0.01%,	1위	1.25, 22위/34개국	1.14, 2위/34개국
			개인 소득	34,056달러 +3.8%(08년 비교)	20위	1.56, 31위/31개국	2.89, 29위/31개국
			직업안정성	-0.03%	4위		
공동체	3.1	34위	자원 관계망의 질	77%	34위	1.08, 36위	1.97, 36위
교육	8.0	4위	교육성취율	81.4%	18위	1.11, 31위/35개국	
			학생 기술 (수학능력점수)	542점	1위	1.00, 6위	1.14, 4위
			교육기간	17.54년	18위	1.10, 34위/35개국	
환경	5.3	30위	대기오염지수	30.3micrograms -3.0%(05년 비교)	33위		
			수질 만족도	78%	27위	1.05, 24위	1.06, 21위
시민 참여	7.5	3위	투표율	75.84%	12위	1.05, 23위/35개국	1.42, 30위/34개국
			규칙제정시 협의	10.4 index +3.5%(05년 비교)	6위		
건강	5.0	30위	기대 수명	81.1년 +0.5%(05년 비교)	15위	1.09, 23위	
			자기보고 건강상태	36.8%	35위	1.20, 32위/35개국	1.43, 24위/33개국
삶의 만족	4.2	25위	삶의 만족도	6 rate	25위	1.05, 31위	1.41, 34위
안전	9.5	6위	범죄(폭력) 피해율	2.09%	7위	1.15, 10위	
			살인율	1.1 homicides	18위	1.44, 8위	
일과 삶의 균형	4.2	34위	장시간 근로자 비율	-27.1%	34위		
			여가개인 돌봄 시간	14.6시간	25위	1.10, 17위/19개국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4, (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재구성, 2014.8

- OECD 주요국 대비 약점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들 중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36.8%에 불과하여 OECD 최하위 수준. 이는 미국 90%, 영국 70%에 비해 매우 낮고, OECD 평균 69%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
-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한국의 기대수명은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건강상태 또는 건강 수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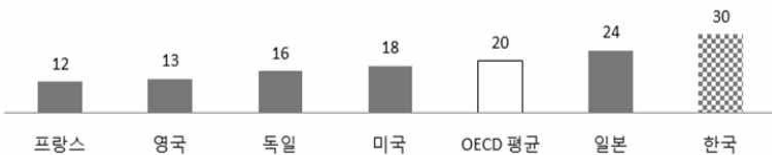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상태(아주 좋음 등 5점척도)(%) 】



자료 : OECD DB(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 대기오염 수준은 1입방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으로 프랑스의 약 3배 수준이며, OECD 주요국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만족도도 27위에 머물러 환경의 질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
- 이것은 환경 파괴를 대가로 이루어 온 개발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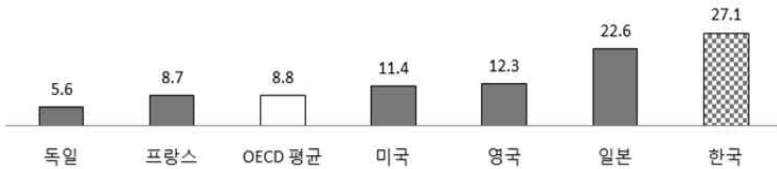
【 대기오염(micrograms/m³) 】



자료 : OECD DB(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27.1%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에 비해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3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 지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약 2,09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5 시간을 크게 초과. 한국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2,226시간)와 함께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 여가 및 개인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14.63시간으로 OECD 평균(14.97 시간)에 못 미치는 중하위권. 이렇듯 스포츠·문화 활동이나 여가 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줌
- 결국 한국인의 장시간 근로와 짧은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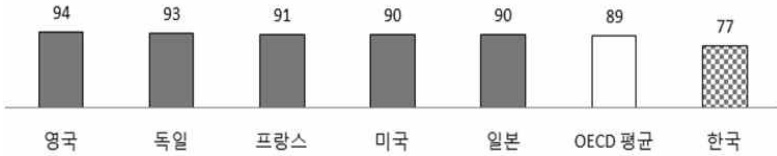
【 장시간(주5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 】



자료 : OECD DB(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7%로 상대적으로 낮음(34위)
- 이는 영국 94%, 독일 93%, 프랑스 91%, 미국 90%, 일본 9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89%에 비해서도 저조함
-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이를 통해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
-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최근 생활세계 곳곳에서 불안과 불신이 빠르게 확산 되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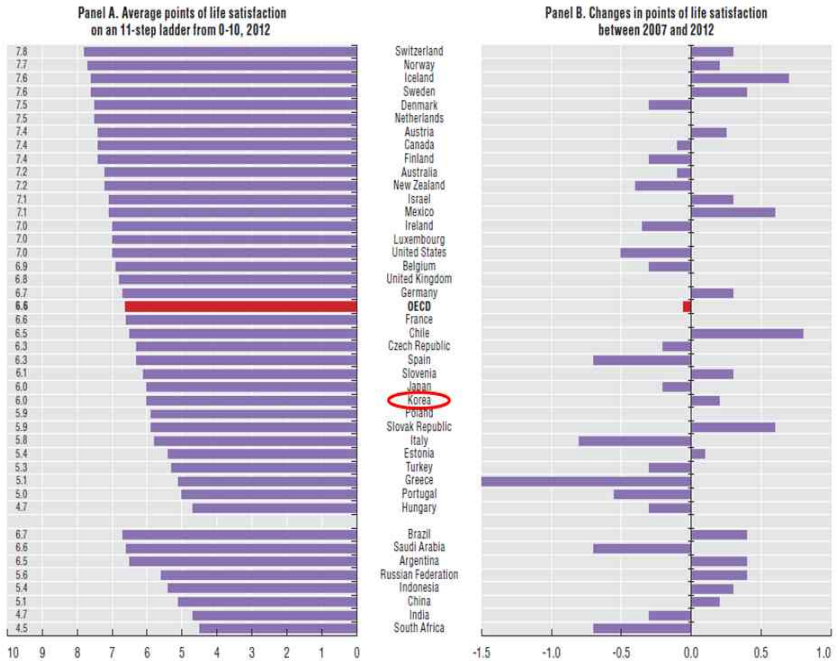
【 사회적 관계(친척, 친구)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자료 : OECD DB(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삶의 만족도, 2007-2012 】



자료 :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 한국의 BLI 추이를 볼 때,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악화된 지표로는 지원 관계망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대기오염도 수준, 여가시간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한국의 Better Life Index 지표값 추이, 2011-2014 】

영역	지표	2011		2012		2013		2014	
		Korea	OECD	Korea	OECD	Korea	OECD	Korea	OECD
주거	기본시설 없는 가구	7.46	2.82	4.16	2.25	4.2	2.2	4.2	2.1
	주거 지출	-	-	16	22	16	21	16	21
	1인당 방수	1.3	1.6	1.4	1.6	1.4	1.6	1.4	1.6
소득	가계 순가처분소득	16,254	22,284	16,570	22,387	17,337	23,047	18,035	23,938
	가계 금융자산	23,671	26,808	23,715	36,238	26,036	40,516	28,290	42,903
직업	고용률	63.31	64.52	63	66	64	66	64	65
	직업안정성	-	-	25.8	10.07	24.3	10.5	3	5.3
	장기실업률	0.01	2.74	0.01	3.04	0.01	3.14	0.01	2.73
	개인소득	-	-	31,733	34,033	35,406	34,466	34,056	41,010
공동체	지원 관계망의 질	79.8	91.1	81	91	77	90	77	89
교육	교육성취	79.14	72.95	80	74	80	74	81	75
	학생 기술	539	493	541	497	541	497	542	497
	교육기간	-	-	17.2	17.3	17.7	16.5	17.5	17.7
환경	대기오염도	30.76	21.99	31	22	33	21	30	20
	수질	-	-	82	85	78	84	78	84
시민 참여	규칙제정시 협의	10.38	7.28	10.4	7.3	10.4	7.3	10.4	7.3
	투표율	63	72	63	73	76	72	76	72
건강	기대수명	79.9	79.2	80.7	79.8	81.1	79.8	81.1	80.1
	주관적 건강상태	43.7	69	38	70	37	69	37	69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6.1	6.7	6	6.7	6	6.6	6	6.6
안전	범죄율(폭력)	2.1	4.1	4.81	3.98	2.1	4	2.1	3.9
	살인율	2.3	2.1	2.8	2.1	2.6	2.2	1.1	4.1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자비율	-	8.46	-	9.47	27.66	8.76	27.13	8.82
	여가시간	15.46	15.46	14.63	14.76	14.63	14.87	14.63	14.97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1/2012/2013/2014, (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재구성, 2014.8

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1) 개요

- 통계청은 2013년 4월 ‘국민행복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3월에는 국민행복 관련 83개 지표의 공표 계획과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으나, 중립성 논란 등의 이유로 최근 국민행복지수 대신 다양한 삶의 질 지표들을 공개하기로 결정
 - 다양한 측정 지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행복지수로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
 - 우선 행복지수에 포함되는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 수준이 매우 주관적인 값이어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수화할 경우 가중치 산출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
 - 그리고 행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통계청이 종합지수(index)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공개하여 사용자가 직접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 ‘국민 삶의 질 지표’(http://gol.kostat.go.kr)는 12개 영역 81종 지표로 구성됨. 물질 부문(4개영역)과 비물질 부문(8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 지표 57종과 주관적 지표 24종으로 구분
- 2014년 8월 현재 ‘주관적 웰빙’, ‘시민참여’ 지표 등은 측정값이 1회만 확보되어 증감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70종의 지표값만 제공 중(2015년부터 모든 지표값 제공 예정)

【 국민 삶의 질 지표 】

	영역	객관적 지표	지표수	주관적 지표	지표수
물질 부문	소득/소비/ 자산	1인당GNI, 균등화중위소득,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2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평균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5	일자리만족도	1
	사회복지	공적연금가입률,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비중	3		
	주거	1인당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4	주거환경만족도	1
비물 질 부문	건강	기대수명, 고혈압유병률, 당뇨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2
		비만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교육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7	학교교육효과, 학교생활만족도	2
		학생1인당 사교육비지출액 PISA백분위순위, 대졸생취업률			
	문화/여가	평균여가시간	4	여가활용만족도, 시간부족인식	2
		1인당 평균국내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률, 문화여가지출비율			
	가족/ 공동체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자살률, 사회적관계망, 사회단체참여율	6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2
	시민참여	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2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시민적 덕목,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 기관신뢰	6
	안전	강력범죄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7	사회안전평가, 아간보행 안전도	2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도로사망률			
환경	에너지빈곤층비율, 미세먼지농도, 하수도보급률, 폐기물재활용비율, GDP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인당 도시공원면적	6		2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 부정 정서경험의 균형	2	

자료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2014. 6. 30.

주 : 11개 지표(기울임 글자)는 현재 1회 자료값만 있어 변화추세 판정 불가, 2014년 현재 공개 대상 제외

【 통계청과 OECD 삶의 질 지표 비교 】

차원	통계청 삶의 질 영역	지표수	OECD BLI	지표수
물질적 생활조건 (22개 지표)	소득/소비/자산	8	Income & Wealth	2
	고용/임금	6	Jobs & Earnings	4
	사회복지	3		
	주거	5	Housing	3
비물질적 생활조건 (59개 지표)	건강	9	Health Status	2
	교육	9	Education & Skills	3
	가족/공동체	8	Social Connection	1
	문화/여가	6	Work-Life Balance	2
	시민참여	8	Civic Engagement	2
	안전	9	Personal Security	2
	환경	8	Environmental Quality	2
	주관적 웰빙	2	Subjective Well-being	1

자료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OECD(2013), How's Life 2013

- 2014년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살펴보면, 물질적 생활조건에서는 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비물질적 생활조건에서는 악화된 지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비물질 부문에서 개선 지표 20종, 악화 16종, 보합 13종)
-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문화/여가, 교육, 환경 영역 등은 최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건강 영역에서는 악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가족/공동체 영역도 대체로 악화
-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최근 악화된 지표로 소득 영역에서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표가 악화되었고, 고용 영역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공적연금 가입률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개선되었지만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였고, 주거 영역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객관적 교육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악화
-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나 여가활동 수준은 나아졌지만, 여가시간 및 시간부족 인식 등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줌

- 주관적 건강평가, 비만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등 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점차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여짐

【 통계청 삶의 질 지표 최근 동향 】

	영역	구성지표	최근 추세	영역	구성지표	최근 추세	
물·질 부분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I	▲	고용·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사회복지	가구평균 순자산	▼	주거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1인당 주거면적	▲	
	사회복지	소비생활 만족도*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공적연금 가입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개선) 14중, ≈(보합) 1중, ▼(악화) 6중			
건강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치원 취원율	▲	
		고혈압 유병률	▼		고등교육 이수율	≈	
		당뇨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업 중단율	▲	
		스트레스 인식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비만율	▼		PISA 백분위 순위	▲	
	문화·여가	문화·여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가족·공동체	대졸생 취업률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교육의 효과*	▲
			평균 여가시간	▼		학교생활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		가족접촉 빈도	▲
시민참여	시민참여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만족도*	≈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		한부모 가구 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독거 노인 비율	▼	
		문화여가 지출 비율	▲		자살률	▲	
환경	시민참여	투표율	▲	가족·공동체	사회적 관계망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사회단체 참여율	▲	
	환경	부패인식지수*	≈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미세먼지 농도	▲	야간보행에 대한안전도*		▼	
		하수도 보급률	≈	도로 사망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기후변화 불안도*	▲	산업재해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화재 발생 건수		▲	
채감 환경 만족도*	▲	▲(개선) 20중, ≈(보합) 13중, ▼(악화) 16중					
삶의 질 지표(70중): ▲(개선) 34중, ≈(보합) 14중, ▼(악화) 22중							

※ 최근 추세는 지표별 최종생산연도 및 비교대상 연도의 시점이 다르므로 해석 시 유의 * 주관지표

자료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2014. 6. 30

IV. 요약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 한국의 경제 지표와 행복 지표 및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해 보면, 경제 지표의 세계 순위는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행복 지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나 경제력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상황
- 단, 소득수준,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삶의 질 지표, 그 중 인간개발지수(HDI)는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결국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인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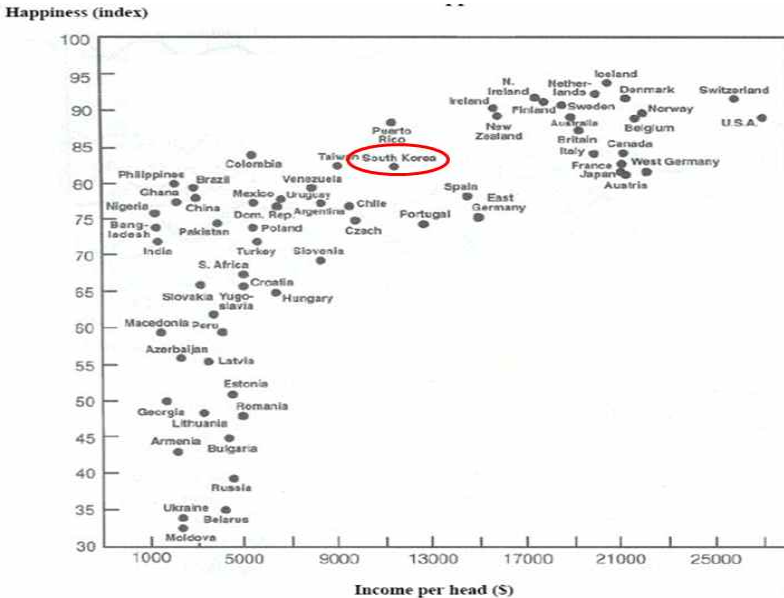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순위 비교 : 경제지표/행복지표/삶의 질 지표 】

지표 성격	경제사회지표	순위	조사대상
경제지표	GDP(2014)	14위	183개국
	구매력평가기준(2013)	12위	183개국
	1인당 GDP(2013)	33위	183개국
	구매력평가기준(2013)	27위	183개국
행복지표	World Happiness Report(2010-12)	41위	156개국
	World Database of Happiness(2000-09)	70위	149개국
	Happy Planet Index(2012)	63위	151개국
삶의 질 지표	Human Development Index(2013)	15위	137개국
	Where-to-be-born Index(2013)	19위	80개국
	Better Life Index(2014)	25위	36개국

- 이러한 결과는 행복과 소득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을 확인시켜 줌

- 물론 이것이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확인되는 현상은 아닌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득이 몇 배가 늘어도 행복도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덴마크나 스웨덴 등은 소득과 행복이 함께 증가함. 이는 정책목표나 국가운영 방식에 따라 행복과 번영의 함수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함의
-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준과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행복감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각 사회마다 다른 욕구조건을 차이를 고려해서 행복을 평가해야 하고,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물질적 생활조건과 소비를 강조하는 경향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탈물질주의 가치 중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행복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 국가별 위치 】



자료 : Inglehart and Klingeman(2000)

- 우리 사회의 경우 2000년대 이래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수준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행복의 문턱’(SBS 미려한국리포트, 2006)에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환의 계곡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물론 행복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첫째,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타당성 문제
 - 둘째,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 직업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부터 사회적 계적 요인, 정신적·신체적 건강 요인, 인구학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의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
 - 셋째, 행복은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소속 집단의 가치 준거, 사회발전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문제
- 결국 지표의 선택과 가중치 부여 등에 따라 행복수준이 전혀 다르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즉, 행복 지표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질적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2. 정책적 시사점

- 앞에서 World Happiness Report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 및 근로조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정치사회적 자유, 정신적 건강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Better Life Index 조사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볼 때 장시간 근로 및 일과 삶의 불균형, 환경의 질, 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을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표로 지적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발전의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근로조건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단순히 실업률과 고용률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 즉, 노동조건, 스트레스와 같은 직장생활 만족도, 적정 노동시간, 기업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 또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도 있음
 -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육은 직업선택 및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의 향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가능.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학업 흥미도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의 일률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진로·직업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 또한 최근에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기회가 사회집단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도록 교육 격차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
- 셋째,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따라서 보건복지시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보건지출 확대가 필요
-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들이 심리치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이혼, 실직, 장애, 질병 등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불행을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
- 보육시설 및 가사지원을 포함한 정책들을 통해 가족 간 불화요인을 완화하고,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사회보호 대책이 필요. 또한 생애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도 중요
-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의 추구’로부터 건강, 안전, 환경, 형평성 등 ‘삶의 질’ 추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 또한 사회통합까지 고려하는 ‘포섭적 성장’으로의 정책적 방향 전환도 요구됨
- 최근 고용없는 성장, 중간층의 몰락,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의 활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 중심적 성장 논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 중심의 경제구조 재구축,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

- 이는 질적인 경제성장과 질적인 사회발전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원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개편 논의가 필요
-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결정 및 재정투입 등의 우선순위에서 행복과 삶의 질 영역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자원배분 원리에 따라 정책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측정가능한 변화’를 위해 정책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차적 과제로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체계 및 정책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